



제 79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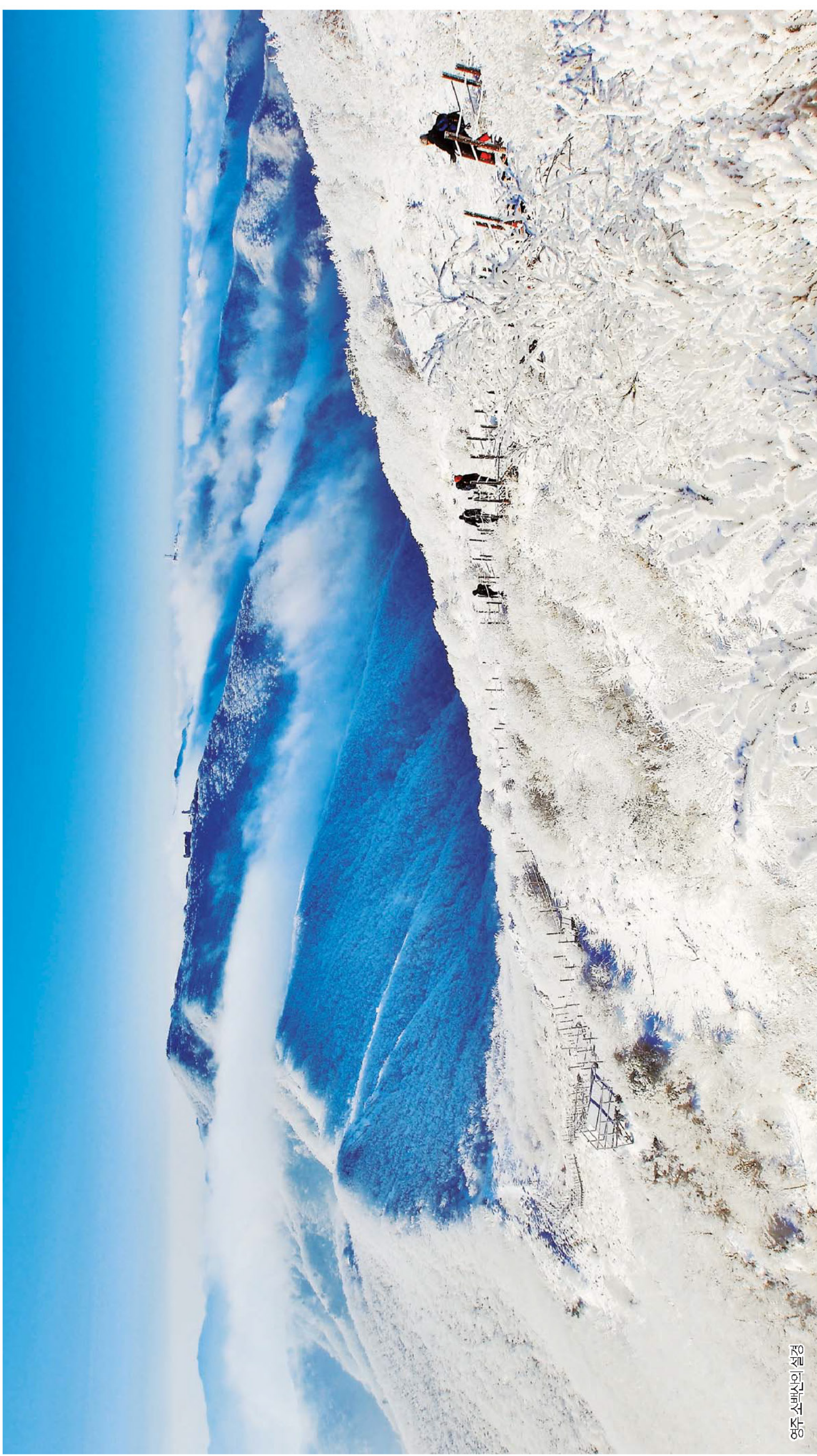


council.gb.go.kr

열린의정규회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3. 12. (제266회 정례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300만 도민 복지증진과 민생안정 역점

경북도정 현안사항 점검, 정책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42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는 경상북도 각 실·국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그리고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첫날인 11월 6일 오후 2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6회 정례회 전체 회기로 결정을 했다.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 및 교육청 각 실·국 및 도내 각 사업장,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도정질문이 이어졌는데, 도정질문 의원으로는 김하수(청도), 장세현(포항), 황이주(울진), 장경식(포항), 김명호(안동), 강영석(상주), 이영식(안동), 최우섭(교육)의원

이 도정질문을 했다.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에 대한 각 실·국별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에서 종합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9일 오전 11시 제4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처리했다.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어 12월 17일 오전 11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 및 현안사항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금년도 마지막 회기로 정례회 4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2013년 송년회, 대의기관 역할 성실히 수행

뜨거운 열정으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 펼쳐

경상북도의회는 12월 17일 제266회 정례회 폐회와 더불어 본회의장 로비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을 되돌아 보고 새해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구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2013년 송년회'를 가졌다.

송년회에는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김귀천 경북경찰청장, 우영길 의정회장, 채원봉 농협경북지역 본부장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송년인사를 통

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도정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보람이 함께 있었던 한해로 구내적으로는 지역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도민의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 상량식을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많은 투자유치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새마을 세계화와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 FTA 대응, 독도 실효적 지배, 복지경북 실현 등 도정에 온힘을 다 해온 한해"였다고 밝혔다. 🏠

의정
단신

안전하고 청정한 동해안 오징어 시식회



경상북도의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중, 오찬시 일본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수산물의 소비침체로 인한 어민 돕기 '안전하고 청정한 동해안 오징어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도정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었는데, 오찬시에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원과 김관용 도지사,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민을 돕기 위한 오징어 시식회를 가졌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오징어를 마음껏 시식해도 된다는 안전성을 강조하고 도시민들의 소비촉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

Contents

차례

지면안내

화보 영주 소백산의 설경	1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인물포커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장경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 이상용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장	4면
특별기고 정현태 경일대학교 중장 - 지방분권 이제 논의보다 실천이 필요할 때다	5면
위원회 활동 의회운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6~13면
도정질문 · 5분자유발언 - 도정질문 : 김하수 · 황이주 · 장경식 · 강영석 · 이영식 · 최우섭 · 장세현 · 김명호 의원 - 5분 자유발언 : 이태식 · 장세현 · 이시하 의원	14면
주요 처리안건 소개 건강칼럼 김태석 원장 - 조기 검진의 효과가 큰 대장암	15면

의정만평

300만 도민과 함께한 1년!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송 필 각 기획·편집 | 임 현 성, 남 정 해

편집인 | 이 태 암 발 행 처 | 경 상 북 도 의 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2013년 의정활동 1년 결산

경북도정 견제와 균형,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

300만 도민에게 희망 심어주는 『소통중심 의회』 운영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2013년 1년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에 답을 찾아 현지확인 역점

2013년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7회 128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161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115건, 예·결산안 8건, 결의·건의안 4건, 동의·승인안 15건, 기타안 19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4회 23명의 의원이 9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29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북도·교육청 예산 10조원 심사

2014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9,94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322억원(6.6%)이 증가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총규모는 3조 3,78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472억원(1.4%)이 증가한 규모로 처리했다.

2014년도 경상도와 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연구활동지원, 전문성·연구기능 강화

화 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

현안 해결 위해 특별위원회 운영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대응해 왔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남부권선공항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의회차원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해 왔다.

의원연구단체는 4개단체 55명으로, '균형발전연구회', '사회안전망연구회', '임업발전연구회', '자연공원생태연구회'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연구활동에 열정을 보였다.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원 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연구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경북의회 역점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

201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송필각 경상북도회의장은 12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 강보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예방을 받고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12월 17일 도청신청사 건립현장사무실에서 제4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 의원)는 12월 9일 2013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201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를 심사했다. 🍎

특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독도!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장경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포항시 5)

“일본의 교묘한 독도분쟁지화 전략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흥분해 휘말리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크나큰 손실로 다가올 것”...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지난해 10월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의원의 민족의 섬! 독도에 대한 사랑과 수호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제8대 경상북도의회 포항시지역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제9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구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제9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도의원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계속되는 침탈 만행과 일본 정부의 헛된 야욕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는 등 독도수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특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은 △2월 5일 일본 정부의 독도 등 영토문제 전담부서 설치 △2월 22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개최 △3

월 26일 일본 정부의 독도예곡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4월 6일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 기술 △7월 9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독도 기술 등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지난 10월 4일에는 경상북도의회가 제정한 독도의 달을 맞아 KBS 대구방송총국이 주관한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평화의 섬, 독도 정책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을 펼쳐 큰 관심과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26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독도관련 체합시설 확대 및 독도방파제 건설’과 ‘독도입도지원센터 준공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가 하면, 울릉도 경비행장, 2단계 사동항, 울릉 일주도로 건설 등 독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민생관련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균형발전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3년 7월 위클리 피플 2013 자랑스러운 주간인물’ 선정과 2013년 8월에는 시사투데이가 주최·주관한 ‘2013 신지식경영대상’ 중 「정계인대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

명품 신청사 건립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
이상봉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장(영양군 1)

“도청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북부권에 새로운 성장거점의 축을 만들고 국가적으로는 세종시와 연계한 구도의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 경북의 균형발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10월부터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용 도의원(영양, 재선)은 위와 같은 위원회 운영방침을 정하고 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상용 위원장은 영양군의회 제3대 부의장, 제4대 의장을 거쳐, 경상북도의회 제8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제9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 후반기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과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을 맡아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신청사가 준공되는 2014년은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우리 지역이 ‘경상도’란 이름을 얻은 지 7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 300만 도민 모두는 하나같이 새로운 도읍지에서 웅도 경북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기대감에 차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청이전과 신도시조성이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세가지 위원회의 운영방향

을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면서 현대와 어우러지는 명품청사를 건립하겠다.

둘째, 경북의 균형발전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그동안 중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북부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

셋째, 2027년까지 2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가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생태도시, 명품 행정지식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의회차원에서 구비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유관기관 이전과 이주공무원 지원대책, 교통망 확충 등 신도시로의 접근성과 초기 정주여건 확립 등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 있어 이 부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제26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농촌전문형 건강관리센터’ 설치와 ‘나홀로 노인’ 지원대책, 토요일 방과 후 학교 운영 개선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도청이전이 당초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방분권 이제 논의보다 실천이 필요할 때다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로 분권형 국가발전의 도모, 중앙집권성 자치제도의 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방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우선시하고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분권형 국가로 전환을 도모해왔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중앙정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저출산·고령화·다문화와 맞물려 L자형 저성장 공포업습 등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로는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 운영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되어 1991년 우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이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은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2할 자치수준으로 지방자치 본래 목적이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제도적인 형식적 분권은 일부 실현되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실질적 분권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 중앙 의존도를 높여 오히려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역효과

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그동안 역대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는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부족을 들 수 있다. 분권과제발굴부터 국회 통과까지는 중앙부처 고위관료들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와 국회의 비협조로 추진이 어려웠다.

둘째, 지방자치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정하도록 규정한 중앙집권적 헌법규정을 들 수 있다. 즉, 성인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혀 활

지방분권정책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 지방분권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지녔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체계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 요구가 부족했던 점도 들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지방4단체협의회 및 분권시민단체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분권을 해달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4단체협의회 간에도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서로 반대 의견을 제시

서 추진 해오던 과제로 박근혜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보다도 역대정부에서 추진이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 해결함으로써 실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심의·의결기구로서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나 일본처럼 '지방분권일괄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단위사무별 지방이양이 아니라 수백 내지 수천 건 일괄 이양을 추진하되 사무와 함께 행·재정이 포괄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권추진에 앞장 설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운동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워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추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회, 분권단체, 언론, 관련학회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 하겠다. 🍀

최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

동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중앙집권형 헌법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정부 내 추진기구와 추진체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즉, 지방분권의 추진주체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등은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직접적인 분권과제 추진권한이 없고, 또한 권한이 양결정사항도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가 특정할 수 없거나 소관 상임위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충돌 등으로 입법적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중앙정부 중심의 위로부터 지방분권정책을 들 수 있다. 즉, 중앙집권체제가 워낙 뿌리 깊고 강한데다 중앙집권적 정부 체제와 이 체제에 기득권을 가진 중앙권력 엘리트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하여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에 이용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 2013년 5월 28일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동년 9월 13일에 출범하여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추진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과제로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확충 및 책임성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대 핵심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새로운 과제라기보다 역대 정부에

의회운영위원회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집행부 감시감독기능 강화, 도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효율적 사용, 도민 행복한 사회 만들기 최선



1.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 예산심사

2. 정례회를 앞두고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013년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42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4차례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 심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도의회 예산 및 올해 정리추경예산을 심사하고,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과 행정사무감사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처리안건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경북 조기실현을 위한 '동해안발전추진단' 신설과 실·구 명칭변경 및 '동해안발전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지정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전문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

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도의원의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전문연구인력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및 전문교육기회 부여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내년도 도의회 당초예산 및 올해 정리추경 예산심사에서는 의원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불용 및 낭비성 예산사용을 줄여 나갈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서는 현재 본회의와 예결위원회 회의만을 공개하는 것에서 비공개 대상 이외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등 모든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법제화함으로써 도민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도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제정안에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세부적 처리절차와 형식의 표준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은 낭비적 요인을 유발하고 지나친 감축은 도리어 행정을 위축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한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으로 도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회기에서 제·개정된 규칙은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자로서의 역할강화와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만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요구 등 현대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도의원 청렴도 향상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간담회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도의회의 역할 강조

경상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2월 17일 도의원 청렴도 향상과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서고 그 위상을 강화하는데는 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청렴한 마음가짐에 기초한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동료의원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심사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정책대안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본청 소관 실·구인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투자본부와 경북개발공사 등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대상기관들에 총 24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사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시정·처리 18건, 건의·촉구 30건 총 48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경북만들기에 최선 생산적이고 효율적 의정활동, 유종의 미 장식

제시하였다. 박진현 위원장은 “경북의 미래와 서민의 삶을 담당하는 본청 실·구를 소관부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도민이 함께 살리는 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은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3~2017년까지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계획적인 기구 및 인력 운용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미래 인력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일과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발전적인 조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병훈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김영기 의원 외 2명

경북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서민생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도의 최우선 정책과제

이 발의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하수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고쳐 수정 가결했다.

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예산 심사

소관 실·구에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1조671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1조 488억원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6,105억원과 특

별회계 5,741억원, 5개 기금 4,747억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내년은 취·등록세 세율 인하, 복지수요 확대, 도청이전 등으로 세출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실·구의 예산낭비는 없는 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지,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지는 않았는 지 등을 중점으로 날카롭게 질의하고 따져 실·구장들이 진담을 흘리기도 하였다. 기획경제위원들은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는 도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은 소관 실·구의 당초예산 및 1차 추경에서 증감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53억원, 특별회계 4억원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149억원, 특별회계 4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다사다난한 2013년도 상임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박진현 위원장은 ‘금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목표로 ‘국민행복시대’로 한 만큼 우리 위원회도 ‘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경북 만들기’를 위하여 집행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격언처럼 부지런히 민생현장을 찾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도정을 설명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하였으며 그리고 올해 도정의 주요사업인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경북의 정체성 찾기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들은 내년 제9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경상북도의 발전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1. '실라리안'판매장 견학
2. (재)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업무 현장확인
3.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에서 현지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대안 제시로 행감 실효성 높여 자치 역량강화와 체감복지 향상에 예산안 심사 중점

행정사무감사로 의정활동 평가받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청 실·구 및 산하·출연기관 12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시정·처리 26건, 건의·촉구 30건으로 총 56건을 지적하고 12월 1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감사관실은 복지시설 비리 차단을 위해 감사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지적하고, 여성정책관실은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정책과제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원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여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적하였고, 보건복지국은 다문화 관련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고 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또한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감사에서 경북도립대학교는 교수 논문실적평가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타당성 있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취업자 사후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민간자본 유치 노력과 불합리한 대학생해외봉사단 선발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포항의료원은 화재 등 응급사태대비 환자이송 대비책을 마련토록 지적하고 시정 개선토록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



1·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3.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현장

행정사무감사 통해 행정 효율성 높여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율성을 높임은 물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11월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위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6억 3,250만원

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체감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등은 삭감하는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12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했다.

이번회기중 5건의 조례안도 심의 의결하였다. 먼저 김창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의 신설과, 부과 대상지역을 규정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황이주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진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애국지사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및 조의금 지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토록 하였고,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을 처리함으로써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3

문화환경위원회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제266회 정례회 활동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반을 편성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본청 2개 부서와 4개 소속기관, 지방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 3개 체육회에 대해 실시한 이번 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감사 결과 총 74건의 시정·처리와 건의·촉구사항을 지적했다.

도 본청 및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의 지역 편중, 철저한 현장행정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도민 의견수렴 미흡 등을 지적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도내 11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시급히 박멸할 것을 촉구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는 연구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 미흡, 자생노력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해 첫 감사를 받은 경북관



올바른 시스템 운영 통해 효율적 예산운용 주문
도민의 혈세 낭비 없도록, 예산편성 운용에 신중

소관부서 업무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감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추구,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예산 심사

광공사는 관광상품 개발, 관광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며 경북관광 마케팅 전문가의 올바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주문하고, 특히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조했다.

세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

11월 27일과 28일 실시한 2014년도 당초예산심사에서 문화관광체육구의 경우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고, 특정 시군에 월등히 높은 비율로 매년 반복되어 편성되는 등 시군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경북도에서 적절히 조정할 것과 박물관, 기념관

건립사업이 관리운영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장 치적위주로 건립이 난립된다면서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임진왜란 극복의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의 애국충절과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임란역사기념공원' 및 '충의역사체험장 조성사업'은 도 전체를 고려해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당부했다.

환경산림구는 (재)경북환경연수원이 주관하는 일부사업의 중복성이 우려된다며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할 것과 (사)환경보호협회의경주지부의 '자연생태보호사업'은 특정 지역의 단체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지적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준높은 연구진과 연구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실적이 부진하다며 보다 참신한 테마로 연구·조사를 추진할 것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장비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할 때마다 임차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12월 10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예산을 추가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이후 구비 변경에 따른 조정과 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조직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2.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3. 문화환경위원회 2014년 예산심사

농수산위원회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2



1



3

1. 성주과채류시험장 행정사무감사
2. 잠사곤충사업장 행정사무감사
3. 농수산위원회 2014년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축산업 구조 개선 요구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 강조
농가소득 증대 위한 예산편성으로 농업경쟁력 갖춰야

민생관련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제226회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북이 늘 농도, 웅도라고 외치고 있지만 농가소득이 전국평균 이하라고 지적하며 농수산국장에게 농가소득 증대 방안과 우리 경북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경북도는 농업에 관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바다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은 농업에 비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동해안은 어느 해안보다도 아름답고 부가가치가 높은 천

해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도가 미약한데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는

농업인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가 통합 운영으로 예산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외 연수시에는 특정인을 위한 연수가 아니라, 모든 회원들에게 균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성토했으며, 해외농업 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출장 내역을 보니 간부공무원 출장이 많은데 실무자 업무능력 개발을 위해 배려해주는 아량이 필요하다고 시정 촉구하였다.

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장비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나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생력과 의식변화가 필요하므로 사업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원한 지역의 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더라도 부정사태가 발견되면 전부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등 강력한 지도 점검을 요구했다.

정상진(예천)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대안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농축산업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도민생활 직결되는 SOC사업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신도시 조성 박차,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 신청사 건설

2013 도정평가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총22개 기관(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소방학교, 17개 소방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도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시장·처리요구사항은 소방공무원들의 지역현황 교육강화로 신속한 상황대처,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 강화훈련과 관계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3건이고 건의·촉구사항으로는 국가하천 수변지역 친수시설 유지관리 철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관리 철저, 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차질없는 정주기반 조성추진, 구급상황일지 전산화 등 구급활동 제도개선 등 14건을 지적하는 등 심도 있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8일에는 문경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역 현안사항 심도있게 분석, 정책방향 제시 국비확보 위해 대응방안 강구, 최선의 노력 다해야

지난 9월에 이전이 완료된 문경 국군체육부대를 방문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현황보고를 받은 뒤 부대시설을 견학하였고, 11월 11일에는 도청신청사 건립현장에서 본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민생관련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린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1~2차 회의를 통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상북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는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 또한,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해화학사고 장비보강 및 도청이전 기반조성 구비 확보 등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12월 10일에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조 2,821억원을 심사 의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등 구비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의한 예산반영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우리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구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 및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문경 국군체육부대 방문
2. 문경소방서 소방장비 현황 청취
3. 도청신청사 건립현장 점검

교육위원회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꼼꼼하고 세심한 예산심사 통한 명품 경북교육 지원 폐교재산 매각 처분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노력

2014년 예산심사

11월 26일 제4차 회의와 11월 27일 제5차 회의에서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입예산안은 비법정전입금의 조기 확보와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당초예산 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주요 구가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누리과정과 급식·방과후지원 등 교육복지 투자 확대, 학교폭력예방 사업과 수용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10건 84억 1,381만 6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84억 1,381만 6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12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재산 4건 249억 4,781만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및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한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취소,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에 따른 감액과 기정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세출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폐교재산 효율적인 처분방안 강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19~12.11까지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과 매각예정 재산인 구룡포초 구동분교장의 재산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했다.

이번 현지방문은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및 매각 예정재산 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방문 장소는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하여 수련활동에 필요한 재산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폐교 매각예정 재산인 구룡포초 구동분교장을 방문하여 재산 처분방안(매각)을 청취한 김수용(영천) 위원장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폐교재산 매각 처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폐교재산 효율적인 처분방안 강구 공교육 내실화로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6건과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을 심사하고, 22개 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8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8일간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었다.

감사결과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 학1인 1운동의 생활화와 토요 스포츠 데이를 통한 학생들의 심신 수련, 학교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노력,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로 교실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명품 경북교육을 위한 수감기관의 많은 노력을 발견하였으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비롯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부실, 소규모학교에 전담교사 배치, 줄어들지 않는 학교폭력, 획일화된 학생야영장의 운영프로그램,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 부족 등 문제점 등 39건을 지적하여 이중 9건은 시정·처리하였고 나머지 30건은 건의·촉구하였다.



1. (구)구룡포초등학교 구동분교장 방문
2,3. (구)구룡포초등학교 구동분교장
처분·활용 방안 청취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국책사업 추진현황 · 문제점 파악 건의사항 수렴 농어업경쟁력확보, 일자리창출, 도청이전, 도민복지중점

2014 경북도청 · 교육청 예산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 12월 6일 오후 11시30분 2014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 본예산의 경우,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9,94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322억원(6.6%)이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3조 3,78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72억원(1.4%)이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6조 9,940억원 중에서, 24건, 69억 6,054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3조 3,784억원 중에서, 3건 30억 5,292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심사의 원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예산심사에서 중점을 둔 분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시장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과, 일자리 창출예산, 도청이전 등 지역균형 개발예산과 아울러 도민복지 분야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총 10조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심사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무조건적 예산삭감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통해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3 제2회 추경예산 심사

12월 16일 오후에 2013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의 경우,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조 1,214억원으로 기정액 보다 257억원(△0.4%)이 감소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3조 5,279억원으로 기정액 보다 630억원(1.8%)이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7조 1,214억원 중에서 세입부에서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종합적으로 검토 ·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사업, 최선 다해 성공적으로 추진

2건, 2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증액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삭감 · 상계 조치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3조 5,279억원을 세입 · 세출 부문 모두 증감변동 없이 원안 가결했다.

구미 금오테크노밸리 등 현지 방문

2014년 예산 심사활동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주 월정교 복원사업 현장과 구미 금오테크노밸리를 각각 방문했다.

특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관

한 보고를 받은 후 위원들은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 사업 완료시 지역의 산업화 기반 구축 정도 및 그 실효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이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심사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권영만 예결위원장은 12월 4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이항규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문경시 출신 이시하의원과 함께 본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1. 경주 월정교 복원사업 현장
2. 구미 금오테크노밸리 현장 방문
3. 2014 경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 심사 의결



도정질문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고용과 자활이다.’라고 밝히며 도청과 교육청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율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의원 (청도)

무자격 상치교사 수업 개선 및 신규교사 발령 기준 마련 촉구

전공과목 외에 다른 과목 수업을 배정받아 두 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수업이 학업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순회교사 제도가, 본교에 대한 소속감 저하,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호응도도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신규교원 임용이 대구 인근지역인 칠곡, 고령, 성주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향후 각 시군 교원 수에 비례해 신규 교사를 발령하는 등 인사발령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황이주 의원 (울진)

포항영일만항 물동량은 '1%'... 물동량 확보대책 세워야

영일만항은 개항 당시 경북도와 대구 기업의 수출입 물동량의 일부만 처리하더라도 채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가동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물동량을 1%도 유치하지 못하고있어 글로벌 항만으로의 도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영

일만항 배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영일만항과 배후산업단지가 동반성장할 때 경북 동해안 일대의 장기적인 지역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장경식 의원 (포항)

제2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문경~상주~김천구간 반영 요구

강영석위원은 신도청소재지를 경유하는 중부내륙고속 복선 철도건설 시도는 타당성이 너무 낮아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누락된 경북선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량집중을 촉구하면서 도청이전에 따른 농

업기술원을 비롯한 직속기관 동반이전 철회 및 분리이전 하는 것이 경북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직속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경북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강영석 의원 (상주)

도청신도시 컨트롤 타워 구성되어야

신도청 이전 문제와 관련, 미래 천년을 대비하는 차별화된 도시로 만들어야만 지속적인 발전으로 경북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신도청이 이전되는 예천·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23개 시군이 균형발전하는 인프라 구축과 여건조성을 계획하는 T/F팀을 만들어 도청이전 이후 발생이 예

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상북도관공공사의 경영정상화 등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영식 의원 (안동)

도 산하기관장 임용시스템 변화 요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의 수업환경과 학생들의 학습환경 등 교육전반적인 부문에 걸쳐서 지역간-학교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학교통폐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며 학교통폐합이 가속화 될 경우 발생하는 유휴 행정재산 활용 방안을 강

구하도록 주장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파동립 학생 등에 대한 관리대책 및 교육 여건상의 격차를 해소, 기숙사 공실율에 대한 대비 방안을 주장했다.



최우섭 의원 (교육2)

깨끗한 물관리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해야

쾌적한 삶에 대한 현대인의 요구는 가장 먼저 깨끗한 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도내의 저수는 5,547개에 이르는 저수지 수질 관리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마장지를 예로들면서 저수지의 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음을 지적하

고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깨끗하고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더불어 주변의 생태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장세현 의원 (포항)

경북도청 신도시, 과도한 절토 등 '난개발' 우려

경북개발공사는 시공 편의와 공사비 절감을 내세워 과도한 절토를 감행했다. 도청 신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고, 현대성과 전통성이 어우러지며, 도시와 농촌이 친환경적으로 공존하는 생태도시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생태터널과 특화주거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환원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 건설하게 될 제2, 3단계 지역은 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김명호 의원 (안동2)

5분 자유발언

구미 봉곡 119안전센터조기 설치 해야

구미 봉곡동, 남통동, 도량1·2동, 선기동, 부곡동은 면적 31.85km², 인구 79,261명(27,215세대), 소방대상물이 443개소에 이르는 등 상주인구 집중과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구미 봉곡 119안전센터의 조기 설치를 통한 시민의 안전확보와 재산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식의원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소방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소방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식 의원 (구미)

양덕초등학교 학생 무단결석 조치 철회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양덕초등학교의 학생 1,169명에 대한 등교거부 사태에 대하여 학교측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함으로 즉각 재고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포항시와 학부모들의 민원을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학생들에게 향후 취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무단결석’이라는 가혹한 울가미를 씌운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장세현 의원 (포항4)

지역불균형 개선 촉구

최근 3년간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 등을 분석한 결과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권 8개 시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합쳐도 구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며, 포항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북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의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개발 사업분야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제대로 이뤄진다면 지역불균형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경북도청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시하 의원 (경주)



제266회 정례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3. 11. 11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12. 12. 11공포, '13. 12. 12시행) 및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하고 별정직과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직위는 일반직으로, 그렇지 않는 직위는 별정직으로 재분류하는 등 직종개편 시행일('13. 12. 12)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전환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2013. 12. 10
- 제정이유: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정'91. 6. 4. 조례 제2030호)에서 위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규정과 통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통서식을 마련하고,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효율화방안 연구」수행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입법정책관 - 899, '13. 8. 19)에 따라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2013. 12. 10
- 개정이유: 새 정부 들어 참여와 소통, 정보공개와 의사활동의 공개·참여 요구 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의록」 등을 통한 전통적·소극적 공개방식을 넘어 적극적 의사공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고, 인터넷 의사공개 근거 및 기준 마련을 통해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접근성 향상과 주민의 참여 보장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함이다.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김영기 의원 외 2인 2013. 10. 28

- 개정이유: 도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과 지역단체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법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법률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김하수 의원 외 8인 2013. 10. 28
- 제정이유: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로 볼 수 있음. 이에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병훈 의원 외 3인 2013. 11. 11
- 제정이유: 일반실업률의 2배가 넘는 청년실업 및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지원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와 취업애로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황이주 의원 외 7인 2013. 10. 28
- 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도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 환경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창숙 의원 외 6인 2013. 10. 28
-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

역자원시설세가 2014. 1. 1. 부터 도세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 방법 및 부과 대상지역을 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박진현 의원 외 2인 2013. 10. 28
- 제정이유: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 발의자: 김봉교 의원 외 6인 2013. 11. 8
-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의 전구 최대 피해 지역이자 지난 2010년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경상북도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고 도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윤창욱 의원 외 11인 2013. 10. 28
- 제정이유: 경상북도 빗물 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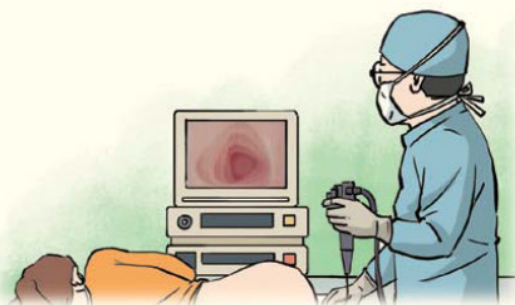
- 제출자: 경상북도교육감 2013. 11. 11
- 개정이유: 2014년 2월 28일자로 한시기구 설치·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생활지도과를 상설기구로 변경하고, 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청도 및 안동 학생야영장을 폐지하고, 현대화된 학생수련시설을 화랑교육원 소속의 「경상북도학생수련원」으로 조직과 명칭을 정하고자 함이다.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조기 검진의 효과가 큰 대장암



단계 과정을 거쳐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종양이 암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대장암의 70% 정도가 대장용종이 자라서 발생한다. 그래서 대장내시경검사 도중에 발견된 용종

들을 제거해 주면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받을 때는 검사 도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절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용종절제술 후 출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약을 조절하여야 한다. 또 대장내시경을 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도 용종절제 수술을 하기 위한 시설과 실력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대장내시경을 두 번 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대장암은 조기 검진의 효과가 어느 암보다 큰 질병이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40대에 들어서면 대장암의 조기 발견과 용종이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혈변, 변이 가늘어지거나 없던 변비가 생기는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 복통, 이유 없는 빈혈, 체중 감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꼭 받아보아야 한다.

대구속편한내과 / 대구 수성구 범어동

☎ 053-741-3399



김태석 원장
(대구속편한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암은 일찍 발견하면 치료 방법이 있지만 늦게 발견되면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생겨 5대암으로 선정된 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이며 이 중에 위암, 대장암은 내시경 기술의 발달로 조기 진단율이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간암이나 폐암처럼 장기 속에 덩어리가 형성되어야 초음파나 컴퓨터 촬영으로 진단이 가능한 암과 달리 위, 대장은 암이 시작되는 장의 점막을 내시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에 검사를 한다면 일찍 병을 찾을 수 있다.

점막에 국한된 상태로 발견된 조기 위암, 대장암은 외과적인 개복 수술 없이 내시경 치료술을 통해서 완치할 수도 있다.

또 다행스럽게도 대장암은 용종이라는 암의 전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지역과 국가발전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외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

을 위해 참봉사를 실천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신장과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